



2014년 서원밸리 그린콘서트 전경

서원 밸리서 한류 꽃핀다

30일 13번째 '그린콘서트' 개최

초록의 필드가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서원밸리 그린콘서트가 30일 13번째 막을 올린다.

서원밸리 골프장(경기도 파주)이 주최하는 '2015 서원밸리 그린콘서트'는 매년 4만 명 이상 찾아와 골프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한류 팬들까지 몰려와 골프장에서 펼쳐지는 한류콘서트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그린콘서트를 찾는 출연진은 역대 가장 화려하다. 아이돌 그룹 EXID와 방탄소년단이 처음 출연을 확정지었고, 걸스데이의 5년 동안 연속 출연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비투비, 소년공화국, 허각, 정동하, 서인영, 홍진영, 신보라, 남궁옥분, 권인하, 강인봉, 박학기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오후 6시부터 펼쳐지는 그린콘서트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갤러리웨이포프 주최의 장타와 어프로치 대회, 보물찾기, 골프용품 사랑 나눔 창고대방출 할인행사 등도 진행된다. 또 코스 내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씨름대회, 글짓기, 사생대회가 펼쳐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개설돼 하루 종일 뛰어놀 수 있다. 골프장 직원들은 음식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를 연다. 콘서트 수익금 전액은 파주보육원 및 사랑의 휠체어 운동본부 등에 전달된다.

2000년부터 시작된 그린콘서트는 지난해까지 약 24만명의 누적 입장객을 기록했고, 약 4억5000만원을 기부했다. 서원밸리 골프장과 대보인사이드(블로그)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영로 기자

평창올림픽 '천일의 약속'

16일 스포츠스타·시민과 'G-1000' 행사

2018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 9~25일) 개막이 100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평창군이 'G-1000일'을 맞는 16일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행사를 연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조양호 조직위원장,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체육계·개최지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총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 G-1000일, 행복한 평창-천일의 약속' 행사를 개최한다.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김연아, 강수진, 이규혁 등 대회 홍보대사들의 성공 기원 다짐과 의수화가 석상화, 휠체어 댄서 김용우, 인기 가수 등의 공연 등으로 꾸러진다. 이튿날인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방송프로그램 공개녹화, 동계스포츠 관련 전시, 경품이벤트, 올림픽 후원사들의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강원도는 조직위 행사와 연계해 16일 '출천 가는 특별열차'를 통해 동계스포츠 스타, 꿈나무와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춘천역에서 '강원도의 꿈,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축하공연도 연다. 개최도시 평창은 '2018평창! 성공을 위한 1000일의 약속'을 주제로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 유치를 이뤄냈던 당시의 열기를 재점화하기 위한 1000마리 소원 비둘기 파포먼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dzhoney@donga.com

KB금융, 봅슬레이·스켈레톤국가대표팀 후원

KB금융그룹이 봅슬레이·스켈레톤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한다. KB금융그룹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강신성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국가대표팀 후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KB금융그룹은 국가대표팀을 3년간 지원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국제대회 참가 및 국내외 전지훈련, 외국인 전문 지도자 섭외, 장비 구매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현우·류한수, 레슬링 아시아선수권 우승

한국레슬링의 간판 김현우(27)와 류한수(27)가 나란히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 김현우는 11일(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5아시아선수권대회 남자 그레코로만형 75kg급 결승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아지스베크프를 9-2 폴승으로 꺾었다. 류한수는 남자 그레코로만형 66kg급 결승에서 이란의 모하마달리를 5-0으로 눌렀다. 둘은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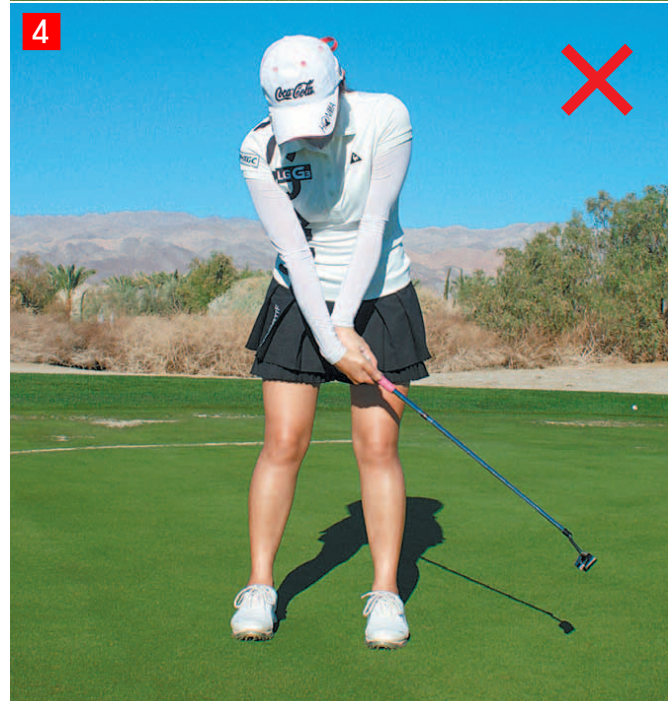
르코고골프와 함께하는 이보미의 힐링골프

19 정확성 높이는 퍼트 만들기

퍼트할때 '어깨-팔-손' 역삼각형 유지



1 2 퍼트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스트로크하는 동안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좀 더 정확한 퍼트를 할 수 있다. 셋업 때 양 어깨와 팔, 손을 역삼각형으로 만들고 스트로크 하는 동안 이 각도를 유지해보자.



3 4 퍼트에서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은 손목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퍼트하는 골퍼의 경우 거리 조절에 실패해 3퍼트, 4퍼트를 남발한다.

짧은 거리는 스트로크 크기만으로 거리 조절 손목 사용은 최소화해야 퍼트 정확성 높아져

퍼트 자세는 골퍼마다 천차만별이다. PGA와 LPGA투어에서 가장 퍼트를 잘 한다는 조던 스피스와 박인비의 퍼트 자세만 봐도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스피스는 특이한 퍼트 자세로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림은 왼손을 오른손보다 내려잡는 크로스 핸드 그림을 사용한다. 여기까지는 다른 골퍼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스피스는 홀 주변 2m 안팎의 퍼트에서는 스트로크할 때 공을 바라보지 않고 홀을 보고 퍼트하는 회한한 자세를 취한다. 박인비 역시 자신만의 독특한 퍼트를 한다. 최근 퍼트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그는 스트로크할 때 눈이 퍼트의 헤드를 따라 함께 움직이는 이른바 '눈동자 굴리기' 퍼트를 한다.

이렇듯 퍼트에는 정답이 없다. 자신만의 편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경우 퍼트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깨와 손이 이루는 역삼각형이다. 스트로크하는 동안 상체가 이루는 역삼각형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손이 아닌 어깨(상체)의 회전을 이용해 퍼트하기 위한 방법이다. 공은 중앙보다 약간 왼발 쪽에 둔다. 이는 스트로크 때 퍼터의 헤드가 조금 더 릴리스 돼 공을 앞으로 밀어줄 수 있다. 공이 퍼터 헤드를 맞고 굴러가면 그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려 공이 목표지점을 향해 잘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거리 조절은 스트로크의 크기와 세기 두 가지를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짧은 거리에서는 스트로크의 크기만으로 거리를 조절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스트로크의 크기와 세기를 동시에 활용하는 게 좋다.

퍼트에서 가장 피해야 할 실수는 손목의 사용이다. 상체와 팔, 손이 이루는 각도가 삼각형이든 오각형이든 큰 차이는 없

다. 자신에게 적합한 자세라면 어떤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어떤 자세에서도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 퍼트의 정확성은 떨어지게 된다. 특히 거리 조절이 쉽지 않다. 특히 공과 홀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이 같은 스트로크를 하는 골퍼들이 많다. 하지만 이렇게 퍼트하는 골퍼의 대부분은 거리 조절에 실패해 3퍼트, 4퍼트를 남발한다. 퍼트에 정답은 없지만 손을 사용하는 건 나쁜 습관이다.

도움말 | 프로골퍼 이보미

정리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le coq sportif
GOLF COLLECTION

파울러 17번홀의 기적...20억 주인공 됐다

72홀의 승부만으로는 부족했다. 연장 2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리키 파울러(27·미국)가 우승상금 180만달러(약 19억 6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리키 파울러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TPC(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챔피언십(총상금 1000만 달러) 정상에 섰다. 4라운드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파울러는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캐빈 키스너(미국)와 동타를 이뤄 연장전에 돌입했다. 16~18번홀에서 펼쳐진 연장 1차전에서 가르시아가 먼저 탈락했고, 17번홀(파3)에서 이어진 서든데스 방식의 연장 2차전에서 버디를 잡아 키스너를 제치고 우승했다.

소그래스TPC는 골퍼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코스다. 특히 17번홀(파3)은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17번홀은 그린을 워터해저드가 둘러싸고 있는 아일랜드 형태로 거리(평균 137야드)에 비해 난도가 높다. 조금만 짧게 치거나 멀리치면 그린을 둘러싼 워터해저드가 블랙홀처럼 골프볼을 빨아들여 공포의 홀로 불린다. 그러나 파울러에게 17번홀은 우승을 안겨준 행운의 홀이 됐다. 파울러는 이날만 17번홀에서 3번을 경기했고, 한 번도 어려운 버디를 3번이나 뽑아내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정규 라운드에서는 티샷을 2.9m에 붙여 버디를 잡았다. 이 버디로 1타 차 단독선두가 됐다. 이어 연장 1차전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가까운 2.7m에 붙여 다시 버디에 성공했다. 가르시아를 무너뜨리는 한방이었다. 키스너와 서든데스 방식으로 펼친 연장 2차전에서 마치 악마의 홀을 가지고 노는 듯 했다. 티샷을 1.5m에 붙이면서 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파울러가 3번의 버디를 기록한 17번홀은 올해도 45개의 골프볼을 집어 삼켰다. 1라운드에서 21개로 가장 많았고, 2라운드 16개, 3라운드 3개, 4라운드에서도 5명이 볼을 맞았다.

파울러는 이날 마지막 4개 홀에서만 5타를 줄이면서 새로운 기록을 남겼다. 15번홀부터 버디-이글-버디-버디로 마무리한 파울러는 스트로크 수를 11개 밖에 기록하지 않았다. 앞서 로코 미디에이트, 본 테일러, 세르히오 가르시아 등 7명이 12타를 기록했다.

파울러는 이번 우승으로 자신에 대한 논란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그는 최근 미국의 한 골프매체에서 'PGA투어에서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로 뽑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록만 보면 그런 평가를 받을 만 했다. 2009년 프로로 데뷔한 파울러는 이전 대회까지 141경기에서 고작 1승을 거뒀다. 2012년 웰스 파고챔피언십이 유일한 우승이다. 앞서 2011년에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와 함께 한국오픈에 출전해 프로 첫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우승은 많지 않았지만 인기만큼은 동갑내기이자 세계랭킹 1위인 로리 매킬로이가 부럽지 않았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오클라호마주립대 출신으로 마지막 날 모교의 상징인 오렌지색의 옷을 즐겨 입어 '오렌지보이'로 불렸고, 평이 납작한 '스냅 백' 모자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런 우승으로 그는 당당해졌다. 올 시즌 각 부문 랭킹도 톱클래스 수준이다. 패덱스컵 랭킹 10위, 10월 열리는 미국과 세계연합팀의 대륙간 골프대항전인 프레지던트스컵 랭킹 7위, 그리고 세계랭킹은 개인 최고인 8위까지 치솟았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연장 2차 접전끝에 PGA 플레이어스 정상 '죽음의 17번홀'서 3번이나 결정적 버디샷



'오렌지보이' 리키 파울러가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TPC에서 열린 PGA투어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우승해 우승상금 180만 달러의 주인공이 됐다. 2009년 데뷔한 파울러는 2012년 웰스파고 챔피언십 이후 3년 만에 통산 2승째를 거뒀다. 파울러가 우승드루피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제공 | 코브라-푸마골프코리아·게티이미지